

1960년대 에따 내부의 이념투쟁: 민족 대 계급*

황보영조
경북대학교

황보영조 (2012), 1960년대 에따 내부의 이념투쟁: 민족 대 계급.

초 록 흔히 에따의 전략과 정책이 일관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960년대 에따 내부에는 다양한 이념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주요 이데올로기 집단은 세 집단이었다. 문화적 민족주의자들과 혁명적 민족주의자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그들이었다.

1960년대 에따 내부의 이념투쟁 문제는 일부 학자들이 이미 다룬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 폭력이 마치 핵심 쟁점인양 이를 정치 폭력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 대 계급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글의 목적은 에따 내부의 이념투쟁을 민족 대 계급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를 편익상 초기와 중기와 말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에따 요원들은 팸플릿과 책, 기사,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다행스럽게도 이 자료들이 1979년에서 1981년에 걸쳐 18권 분량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것이 이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핵심어 에따, 에킨, 바스크, 민족주의, 바스크민족전선

* 이 연구는 2009년 경북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2011년 10월 20일에 바스크 분리 독립운동 단체 에따(ETA, 바스크 조국과 자유)가 또 무장투쟁을 종식한다고 선언했다. 한두 번째가 아니어서 이를 이 솅우화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듣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일단 모두가 환영했다.

에따는 기본적으로 바스크 민족주의 단체이다. 바스크 민족주의는 이중적인 좌절 속에서 생겨났다. 19세기 말에 단행된 바스크 현장(fueros) 폐지와 산업혁명의 시작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바스크 사회의 전자본주의적 지배집단은 기존 헤게모니를 유지할 정치적·경제적·법적 수단을 상실했다(Jáuregui 1986, 587). 사비노 아라나가 바스크 민족주의를 창시하고 바스크 민족당(PNV, 이하에서는 바민당)을 창당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바스크 민족주의자들은 내전을 거쳐 집권한 프랑코 독재 정권 하에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다. 망명 정부를 구성해 바스크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민당이 전자에 해당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며 바스크족의 분리 독립을 추진한 에따가 후자에 해당한다.

1959년에 창설된 에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8백여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납치했으며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에따를 테러 단체로 분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에따가 처음부터 테러 단체는 아니었다. 이념투쟁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특히 처음 10여 년은 세 가지 주요 이념 주창자들이 각축을 벌인 시기였다. 문화적 민족주의파와 혁명적 민족주의파, 마르크스-레닌주의파가 그들이다. 이들은 프랑코 독재 정권의 억압과 바스크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세력을 떨쳤다. 에따는 이 시기에 분열과 통합을 겪으면서 더욱 급진적인 단체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이 벌인 이념투쟁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간은 에따의 창설에서부터 1970년대 초까지로 한다. 1970년대 초 이후에도 이념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에따의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

다. 에따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념투쟁은 주로 이 10여 년에 일어났다.

이 이념투쟁 문제는 이미 몇몇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소개했다. 이들은 대개 정치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표적으로 구루츠 하우레기(Jáuregui 1981)와 호세 마리아 가르멘디아(Garmendia 1995), 존 설리번(Sullivan 198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과 달리 로버트 클라크(Clark 1990)와 루드거 메스(Mees 2003), 치키 베네가스(Benegas 2000)는 평화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이를 다루었다. 사그라리오 모란(Morán 1997)은 에스파냐와 프랑스 국가의 반격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호세바 술라이카(Zulaika 1988)나 베고냐 아레차(Aretxaga 1999) 같은 학자들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폭력의 다양한 의미와 사회적 결과를 분석했다. 호세 마누엘 마타 로페스(Mata López 1993)는 급진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를 다루었다.

하지만 이념투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력 문제도 주요 논점이었지만 민족과 계급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인 논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에따에는 세 가지 경향, 곧 문화적 민족주의와 혁명적 민족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있었다(Clark 1979, 45). 에따 창설의 모체가 되는 에킨 집단이 대변한 첫 번째 경향은 민족 문제, 곧 바스크 독립을 으뜸 의제로 삼았다. 에따의 이념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크루트비히의 사상을 따르는 두 번째 경향은 바스크를 에스파냐 식민지로 개념화했다. 이들은 민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 번째 경향은 바스크 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았다. 마르크스주의 시각에 따르면 바스크 민족주의는 광범한 노동자해방 운동의 부수현상에 불과했다.

이 글의 초점은 에따 내부의 이념투쟁을 민족 대 계급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이를 편의상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한 초기(1959-1964년)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한 중기(1965-1966년),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이 지배한 말기(1967-1970년)로 나누어 살펴본다.

당시 이념투쟁의 매체는 주로 팸플릿, 책, 기사, 연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자료들을 모은 자료집이 1979년에서 1981년 사이에 총 18권으로 발간되었다(ETA 1979-1981). 이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사료가 대부분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II. 초기(1959-1964년)

1. 기원과 창립

에따의 기원은 1952년에 조직된 에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킨은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만든 토론회였다. 대부분이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부유한 중산 계급 출신인 이 학생들은 프랑코 정권의 바스크 문화 탄압에 불만을 품고 바스크족의 과거를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이들은 주로 바스크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 배포했다.

이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프랑코 정권의 보복과 박해를 들 수 있다. 프랑코 정권은 내전이 끝난 뒤에도 종전의 적들을 계속 처형했다. 공화정 지지자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차별했다.¹⁾ 그들을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에 수감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했다(Richards 1998). 언어와 문화에 대한 억압도 극심했다. 공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바스크어 사용을 금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를 어기면 처벌했다. 춤과 음악 등의 문화 활동과 민속도 억압했다(Jáuregui 1986, 589).

둘째로, 프랑코의 운명이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운명처럼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았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고 프랑코 정권이 고립되자 반체제 인사들 상당수는 프랑코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연합국이 에스파냐에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합국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

1) 바스크 지역에서는 기쁘스꼬야와 비스까야 주민들이 공화정 편을 들었다. 바스크 정부를 따라 망명한 바스크인들이 10만 명에서 15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프랑스, 영국, 미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다(Gurrutxaga 1996, 102).

이 에스파냐를 동맹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프랑코 정권과 트루먼 행정부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져 1950년에는 양국의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었다.²⁾ 이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에 가입하면서 에스파냐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에스파냐의 관점에서는 매우 잘 된 일이었지만 바스크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일이었다. 이제 바스크인들은 미국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로, 바스크 민족주의 운동의 위기이다. 내전이 진행되던 1937년 6월 반란군이 바스크 지역의 마지막 보루인 빌바오를 점령하자 바스크 자치정부는 망명을 떠났다.³⁾ 바스크인들 상당수는 프랑코 정권 하에서도 이 망명정부와 망명정부를 주도하는 바민당이 바스크의 합법적인 대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민당 중심의 민족주의자들이 바스크에서 다시 집권할 가능성은 요원해보였다. 심지어 바민당 지도자 란다부루는 바스크인들이 프랑코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민당이 펼친 민족주의 운동은 문화적 차원의 운동에 머물렀다. 반정부 투쟁은 포기한지 오래였다(Landáburu 1956, 115-116). 게다가 1951년 파업에 연루돼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었다.

에킨을 조직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에킨은 바민당의 원칙과 전통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프랑코 정권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에킨 모임을 주도한 칠라르테기⁴⁾는 19세기 말에 사비노 아라나가 민족주의 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스크족의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민당처럼 잡지를 발간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는 문화 소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1953년에는 마드리드협정을 체결해 미국으로부터 2억2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기술 원조를 받는 대신에 공군기지 5곳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프랑코가 국제체제에 진입했고 자신을 볼셰비키의 위협을 막는 ‘서구의 보초’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3) 바스크 망명정부는 1979년까지 존속하게 된다.

4) 본명은 호세 루이스 알바레스 엠파란사이다.

그는 소위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스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거나 전파하지 않는 데 매우 놀랐고 바스크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민족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다(Ibarzábal 1978).⁵⁾

에킨은 1956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바스크대회(Congreso Mundial Vasco) 이후 바민당 청년단 에우스코 가스페디(EG)와 통합해 에우스코 가스페디 인다라(EGI)가 되었다.⁶⁾ 이로써 에킨은 젊은 대중들에게 접근할 길이 열렸고 바민당은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에킨 단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통합 단체는 처음부터 내부갈등이 있었다. 바민당 지도자들은 에킨 단원들이 오만불손하게 바민당의 투쟁경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통합 단체가 비밀단체가 아니라 일종의 민속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던 에킨 창립자들은 프랑코 정권의 탄압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TA 1979-1981 Vol. 1, 25-32). 이런 갈등은 서로가 미국의 정보요원 구실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악화되었다. 바민당 우파는 에킨 집단이 당내 좌파나 미 국무부와 직접 접촉한 사실에 놀랐고 칠라르데기는 바민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Ibarzábal 1979).

이런 가운데 1958년에 에킨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니토 델 바예가 당에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바민당 비스까야주위원회에 의해 제명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Clark 1984, 25). 이 사건으로 적대감이 극에 달했다. 에킨 집단은 결국 독립 단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민당을 탈당했다.

에따는 이들 에킨 집단이 1959년 7월 31일 성 이냐시오 축일에 창립한 단체이다.⁷⁾ 이때 에우스코 가스페디 인다라 단원 수백 명이 에킨 집단을 따라

5) 참고로 1970년대 초의 연구(Yrizar 1973)에 따르면 바스크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스크 인구의 20퍼센트 미만에 불과했다.

6) 이 대회에 참석한 에킨 단원 2명이 바스크 망명정부 수반인 호세 안토니오 아기에를 만나 이러한 통합 방안에 합의했다.

7) 제일 유명한 바스크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회 창립자 성 이냐시오 축일을 창립일로

에따에 가입했다. 이들이 왜 에따를 선택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다룬 설리번(1988, 42)은 이들이 에따를 선택한 데는 친구들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했다. 식사와 산행을 같이 하는 동년배 집단(cuadrilla)의 분위기가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에따를 연구한 하우레기(1986, 592)는 이들의 선택을 두고 내전에 패배한 세대의 망령을 떨치고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섰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어찌됐든 행동주의를 지향하는 젊은이들로 세대교체가 일어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에따의 활약은 1961년까지 거의 미미했다. 바민당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육과 문화 활동에 치중했고 전단지나 바스크 깃발을 배포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그 해 봄에는 다소 변화가 생겼다. 대표 기관지 『주틱(Zutik)』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차츰 단체의 색깔과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에따가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61년 7월 18일이었다. 에따 요원들이 이 날에 내전 참전 용사들이 탄 열차의 탈선을 시도한 것이다. 프랑코 붕기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참전 용사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에스파냐 당국은 이에 가혹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에따 요원 100명 이상이 투옥되었고 100여 명 정도는 프랑스로 망명했다(Clark 1984, 35). 이 사건으로 에따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조직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2. 원칙 선언

에따는 출범한지 3년이 지나도록 기본 정신이나 원칙을 천명하지 않았다. 총회를 열지도 못했다. 이는 아마도 설리번(1988, 47-48)이 얘기한 대로 1961년 7월 사건으로 조직이 약화되어서이거나 아니면 바민당의 그것과 다른 차

선택한 것은 종교적 영향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하지만 창립일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다. 혼 니콜라스는 1958년을 제시하고 있고 줄렌 마다리아가는 1959년 초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칠라르테기의 주장을 따른다.

별성을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프랑스로 망명한 에따 요원들은 현지에서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1962년 초에 처음으로 에따의 목표를 천명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스크의 독립이었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용한 모든 수단-폭력을 포함한-을 동원”한다고 했다(Arteaga 1971, 215). 별다른 내용이 없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바스크의 독립을 목표로 내걸고 폭력 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전선이라 부르는 4개 하위조직을 구성했다. 즐렌 마다리아가 정치전선을 담당하고 베니토 텔 바예가 경제전선을, 이냐시오 이리가라이가 군사전선을, 알바레스 엔파란사(칠라르데기)가 문화전선을 각각 담당했다.

집행위원회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총회 소집이었다. 1962년 5월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칙 선언을 채택했다(ETA 1979-1981 Vol.1, 532-533; Beltza 1977, 96-99). 2쪽에 불과한 이 원칙 선언이 총회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에따는 이 선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혁명적인 바스크민족 해방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에스파냐 바스크와 프랑스 바스크가 각각 독립한 다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로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선언은 바스크족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주민들을 추방하거나 분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미래의 바스크 독립국가에는 파시즘 체제든 공산주의 체제든 독재체제를 꿈꾸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바스크어(에우스케라 혹은 에우스카라)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인종주의를 거부한다는 내용,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조와 협동조합을 장려하며 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따가 이 선언에서 상정한 민족주의는 대체로 기존의 민족주의, 곧 역사적 민족주의를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종교에 대해 비고백적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종교를 고집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의 위세가 강한 바스크 사회

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결정이다. 둘째로,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의미의 인종주의를 거부하고 언어-문화적 의미의 민족을 정체성의 표지로 선택했다.

에따가 상정한 새로운 민족주의는 당시 바스크 지역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파냐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인 바스크의 경제가 팽창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노동수요가 급증했다.⁸⁾ 그 결과 일자리를 찾는 거대한 이주민 물결이 바스크로 몰려들었다. 이주는 1890년대부터 계속되었지만 1950년대부터는 그 수가 매년 2만 명을 넘어섰다(표 1). 1970년대 중반에는 이주민 비율이 바스크 인구의 35퍼센트에 달할 정도였다(Clark 1984, 10). 이주민들은 주로 젊은이들이었고 노동자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바스크족이 아닌 노동자들의 이해와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에따의 이념에 미친 영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1차 총회는 이밖에도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전선 조직을 승인했다. 이로써 망명 중인 에킨 출신 요원들이 에따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에따는 바스크 독립투쟁을 맹세한 젊은이들의 폐쇄적인 단체가 되었다. 당시 에스파냐 국

표 1. 1901~1970년 바스크 이주민

연 대	아라바	기뿌스꼬아	나바라	비스까야
1901-1910	-9,203	6,157	-25,957	-2,959
1911-1920	-7,239	8,174	-12,486	18,997
1921-1930	-5,210	12,729	-21,185	18,290
1931-1940	2,650	9,964	-2,305	-1,344
1941-1950	-3,797	10,568	-19,833	18,987
1951-1960	7,703	48,754	-20,499	96,399
1961-1970	42,547	64,845	18,127	148,804

Cámara de Comercio, Industria y Navegación de Bilbao 1978, 56

8) 1950년대 에스파냐 경제가 연간 3.5퍼센트 비율로 성장했고 1960년대 들어 바스크에 집중된 제조업은 이보다 세 배나 더 빠른 비율로 성장했다. 1960년대 에스파냐 경제는 유럽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Clark 1984, 17).

내에 수감 중인 요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들이 장기복역을 마치 고 출소했을 때는 에따가 전과 매우 다른 단체가 되어 있었다.

1차 총회 이후 에따의 정체성과 전략이 확립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념 논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에따가 직면한 문제는 바스크 민족주의를 사회경제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민족해방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앞서 얘기한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였다.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바스크의 생활방식과 문화가 위협을 받게 되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지인이 '민족'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을 도외시킬 수 없게 되었다(Núñez 1977). 게다가 바스크인이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에스파냐인인 사람들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했다. 바스크 민족주의를 위해서는 이주민을 적대시하고 바스크 사회의 단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운동의 기초를 바스크족에 국한하고 프랑코 정권에 반대하는 에스파냐인들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민족 해방운동은 소수파 운동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에따는 아직 이주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을 전면 수용하게 되면 좌파 '에스파냐인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민족주의 정서에서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경향을 기관지 『주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4월호에서 이주민 문제를 심층 보도했고 그 다음 호에는 이주가 프랑코 정권의 음모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이주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는 기사가 실렸다. 심지어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바스크족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에따는 이주민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따는 사실 노동운동에 대해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발생한 파업과 노동소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었다. 1963년 10월 비스까야에서 진행된 해직 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총파업에

가담했다. 그 결과 핵심 요원 27명이 체포되는 후폭풍이 불어 닥쳤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에따 내에는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쿠바와 알제리의 반식민지 투쟁에서 영감을 받은 그들은 피델 카스트로를 열렬히 지지했고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 지도자들을 지지했다. 이들에게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접목하는 길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바스크를 제3세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바스크가 일종의 식민지이고 민족해방의 길이 알제리나 쿠바, 베트남의 모델과 같은 게릴라전에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과 달리 산업화된 바스크가 제3세계와 닮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Sullivan 1988, 52).

1차 총회 이후 에따 내에는 이렇듯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전통적인 바스크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주민과 에스파냐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들, 제3세계의 게릴라 전략을 옹호하는 자들,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마르크스주의 전략을 따르려는 자들이 그들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에따의 역사는 이들이 각축을 벌인 이념투쟁의 역사였다. 그만큼 에따는 이념적인 흥역을 치러야 했다.

3. 크루트비히의 영향

이 시기 에따의 이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크루트비히⁹⁾였다. 그가 1962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바스크』(Sarraihi de Ihartza 1962)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에스파냐 우파들이 이 책의 저자가 에따의 주요 이론가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크루트비히가 나중에는 에따에 가입하지만 당시에는 에따 요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ETA 1979-1981 Vol. 3, 114-120). 이 책이 에따에 미친 영향은 1년 뒤인 1963년에 출간된 소책자 『바

9) 크루트비히는 1922년에 비스까야에서 출생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탈리아인과 독일인이었다. 언어학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1942년에서 1953년까지 비스까야 소재 바스크어학술원 회원을 지냈다. 그곳에서 바스크 방언들을 대신할 통일바스크어 창제 작업을 했다. 그의 필명은 사라일 데 이아르차였다.

스크의 봉기』(Madariaga 1963)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 책의 내용은 크루트비히가 얘기한 무장투쟁을 요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반식민 투쟁, 특히 알제리의 반식민 투쟁을 분석한 크루트비히는 바스크가 유럽 제국주의 식민지보다 더 심한 억압을 받고 있던 면서(Sarraihl de Ihartza 1962, 296) 독립을 성취할 유일한 방법으로 소규모 게릴라전 중심의 민족해방 전쟁을 제시했다(Ibid., 329-336; 340). 그는 바스크 독립을 위해 제3세계 민족주의 모델을 선택했고 더 나아가 혁명전쟁을 주장했다. 정치적 해결이나 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스크가 제3세계와 달리 교육 수준이나 산업화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해방투쟁의 과정은 알제리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bid., 337-340).

크루트비히가 에따의 전략에 미친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아마도 행동-억압-행동의 나선이론일 것이다. 혁명세력은 대중시위를 억압하는 자들을 징벌해야 한다. 그러면 점령 세력이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저항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그가 얘기한 나선이론의 요지이다. 그는 이 이론에 입각해 점령군 고문관들을 고문할 필요가 있고 고문관 가족들을 살해하고 억압국가의 경찰과 관료에게 테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bid., 339-340).

줄렌 마다리아가는 『바스크의 봉기』에서 크루트비히가 제시한 게릴라 투쟁과 나선이론을 반복했다. 그는 바스크에서 적군을 물리적으로 물리치는 것보다는 무질서를 조장하고 억압세력의 합법성을 파괴하는 것이 게릴라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Madariaga 1963, 30-32).

에따는 1963년 3월에 개최한 2차 총회에서 크루트비히의 혁명전쟁 원리를 공식 승인하고 1964년 4월과 5월에 개최한 3차 총회에서 행동-억압-행동의 나선이론을 채택했다. 3차 총회는 이밖에도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 대회였다. 3차 총회는 일련의 결의안을 통해 바민당과 단호한 결별을 선언했다.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에따가 부르주아 정당인 바민당과 합

계 일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에따는 또한 3차 총회에서 1963년 10월 파업으로 감옥에 투옥된 호세 살비데의 옥중서신 “지식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단체의 공식 문건으로 승인했다. 이는 창립 이후 에따의 변천을 설명한 문서로 ‘민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바스크 지역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동일 현실에서 생겨난 문제로 파악했다(Garmendia 1979 Vol. 1, 151-161; ETA 1979-1981 Vol. 3, 507-518). 민족 문제든 사회 문제든 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에따 내에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64년 10월에는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칠라르테기, 마다리아가, 베니포텔 바예, 이리가라이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추방을 당했다. 이는 프랑스 경찰이 이리가라이의 수출입 회사 사무실에서 무기와 서류를 발견하고서 내린 조치였다. 이들은 다시 벨기어로 망명했다. 그 결과 이들 에킨 창립 요원들의 에따 장악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었다. 바스크 지역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무렵에 보다 급진적인 성향의 빠꼬 이뚜리오스와 호세 살비데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제 에따가 혁명적 노동자 정당을 창설해 보편적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III. 중기(1965-1966년)

1. 4차 총회와 정치국

4차 총회는 1965년 8월에 기쁘스꼬아에서 열렸다. 이는 에스파냐에서 개최한 첫 대회였다. 에킨 창립자들이 멀리 벨기어로 망명한 가운데 치러진 이 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뚜리오스와 살비데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뚜리오스는 트로츠키파였고 살비데는 크루트비히의 게릴라 전략을 따르는 제3세계파였다.

이들의 영향으로 4차 총회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채택하고 기존의 ‘전선’ 조직을 ‘국’ 조직으로 대체했다. 이를테면 기존의 군사전선을

대체한 행동국이 요원들의 훈련과 작전을 담당했다. 이때 막강한 부서로 떠오른 것은 정치전선을 대체한 정치국이였다. 정치국이 집행위원회의 기능 대부분을 관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내 거주 에따 지도자들이 속속 정치국으로 모여들었다. 주요 인물은 에따 창립요원 이뚜리오스와 에우헤니오 텔리오였다. 기관지 『주티크』의 주필을 맡은 살비테가 그 해 9월에 은행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고 그에 연루된 요원들이 망명을 떠나면서 이들 이뚜리오스 일파가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뚜리오스가 정치국을 장악하면서 에따는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일에 치중했다. 기관지 『주티크』에는 언어-문화적 민족주의와 제3세계식 혁명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등장했다. 이는 에따 내에 마르크스주의 경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Sullivan 1988, 58; Clark 1984, 41-42).

이 시기에 에스파냐 노동계는 긴 탄압의 시기를 지나 다시 노동운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위원회(CCOO)를 조직한 것이 이 무렵이었다(Sartorius 1975, passim). 이러한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영향을 받은 에따 정치국은 노동자 계급을 반독재 투쟁의 주요 세력으로 보고 노동운동 단체들과 협력을 시도했다. 하지만 노동자들, 특히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급진적 민족주의 집단 에따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들은 바스크어 부활이나 바스크 독립국가 건설에 관심이 없었다. 빌바오를 비롯한 바스크 지역 산업노동자들이 실제로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llivan 1988, 59).

이에 정치국 지도자들은 기존 전략을 수정했다. 바스크 사회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제3세계식 게릴라전보다 계급투쟁 전략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바스크 인민을 억압하는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핵심 세력인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기관지 『주티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에 사회주의 선전이나 노동투쟁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잡지를 가득 메웠다.¹⁰⁾ 기사를 모두 에스파냐어로 쓰

10) 1965년 8월에 간행된 『주티크』 32호에서부터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그 내용도 바스크 지역의 정치경제에서 에스파냐 전역의 그것으로 확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바스크 지역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주민이거나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바스크인(문화적인 에스파냐인)인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을 끌어안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세력과 충돌하게 될 뿐이었다.

그러나 에따 지도부는 소수의 무장활동(게릴라) 전략을 버리고 대중행동을 선택했으며 부르주아지와 연합을 비판하고 노동자위원회를 지원했다.¹¹⁾ 바스크 해방을 위해 ‘에스파냐’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주민을 바스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에따의 초기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바스크어를 수호하자는 목표는 에스파냐어를 바스크어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이중 언어 사용을 허용하자는 요구로 바뀌었고 에스파냐 바스크와 프랑스 바스크를 통일하자는 요구는 부적절한 것이 되고 말았다.

2. 5차 총회와 에따-베리

하지만 정치국 중심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러한 에따의 성격 변화가 곧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따는 둘로 나뉘었다.

이러한 변화에 비판을 가한 사람은 멀리 벨기에에 망명 중이던 칠라르테기(ETA 1979-1981 Vol. 4, 422-468)였다. 그는 정치국 지도부가 에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계급전선 주장이 모든 사회 계급을 아우르는 바스크인들의 민족전선 결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바스크어를 소홀히 다룬 점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에따가 민족해방을 위한 애국운동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발행하던 잡지 『브랑카 *Branka*』를 통해 정치국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정치국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11) 『주티』 41호와 43호에 실린 기사를 보라.

칠라르데기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치국 지도자들은 바스크어 문제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 화해를 도모했다. 하지만 에따가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은 수용하지 않았다(ETA 1979-1981 Vol. 4, 470-473).

이러한 반응에 만족하지 않은 칠라르데기(ETA 1979-1981 Vol. 4, 422-468)는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에스파냐파가 에따에 침투해 에따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정치국이 채택한 노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에따의 원칙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¹²⁾ 정치국이 에따를 배신하고 에따를 다른 지역 사회주의 혁명 집단과 연계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푸리오스 일파를 '에스파냐파' 나 '사회적 국수주의자' 로 몰아붙이면서 에따에 침투한 에스파냐 인민해방전선 바스크 지부인 바스크사회주의 통일(ESBA)을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칠라르데기의 비판에 공감한 자들은 이마스 가라이와 베니또 델 바예였다. 이들은 에킨을 창립한 에따의 구 지도자들이었다. 바스크어를 강조해 문화주의자들 혹은 문화적 민족주의자들로 알려졌다.

소위 제3세계파로 알려진 이들도 이들 칠라르데기파와 마찬가지로 이푸리오스 일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에킨 창립자 줄렌 마다리아가와 에체바리에따 형제(호세 안토니오와 하비에르), 벨차라는 필명으로 활약한 로페스 아단, 호세 마리아 에스쿠비가 제3세계파에 속한 인물들이었고 크루트비히가 그 대변인이었다(Clark 1984, 42-43). 크루트비히는 『바스크 문제』(1965)나 『혁명적 민족주의』(1966) 같은 저서를 통해 제3세계파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푸리오스파가 보편적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좋아한다며 정치국의 '개혁주의' 성향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주문했다.

12) 그는 이와 더불어 에따의 첫 번째 과업은 바스크어 강화여야 하고 독립국가 바스크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어야 한다면서 1962년 1차 총회에서 채택한 이념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칠라르데기파와 크루트비히를 비롯한 제3세계파가 개혁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이뚜리오스와 정치국을 공격하는 양상이 되었다. 마침 이 두 계파가 공동보조를 취할 계기가 등장했다. 정치국이 『주틱』 43호를 통해 에따 요원들 모두에게 1966년 가을로 잡힌 에스파냐 노조 선거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ETA 1979-1981 Vol. 5, 55-68). 이에 바스크의 정치 세력들은 모두 그것이 프랑코 정권이 통제하는 노조 체계를 합법화해주는 꼴이라며 선거를 보이콧하기로 합의했다. 공식 기관지를 통한 투표 참여 독려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축출할 명분을 찾고 있던 다른 계파들에게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추방 작업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국내 지도부의 조직이 에따 초기의 그것보다 더욱 탄탄했기 때문이다. 이에 망명 중인 구 지도부는 정치국에 불만을 품은 젊은 망명자들을 국내에 잠입시켰다.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 마리아 에스쿠비였다. 다른 망명 요원들과 더불어 국내로 잠입한 에스쿠비는 반대파를 규합하고 정치국 지도자들을 제거할 전략을 세웠다(ETA 1979-1981 Vol. 4, 532-534). 이들에게는 운이 좋게도 에따 기구의 상당 부분이 트로츠키 파에게 넘어갔지만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문화주의파와 제3세계파의 수중에 있었다(Clark 1984, 43).

에스쿠비는 권력분립 원칙을 이용해 이뚜리오스 일파를 축출하기로 하고 정치국에는 알리지 않은 채 에체바리에따 형제의 지원을 받아 총회를 준비했다. 그는 망명 지도부의 이름으로 1966년 12월 7일에 기쁘스코아 주 가스텔루 교회에서 제5차 총회를 열었다.

5차 총회는 세 파별이 각축을 벌인 대회였다. 노동계급 투쟁에 참여한 트로츠키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3세계 혁명 전략을 거부하고 에따와 유럽의 신좌파 혁명운동을 조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들의 전략은 노동운동과 노동계급 전체를 대변할 혁명 정당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에따 창립자들이 다수인 두 번째 파별은 내전 이전의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자들로 마르크스주의와 제3세계파의 혁명이론, 게릴라 전략을 거부하고 바스

크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지향했다. 세 번째 파벌은 제3세계 방식의 혁명을 지지하는 자들로 행동주의와 무장투쟁을 강력히 옹호했다.

5차 총회는 두 차례 열렸다. 1부는 앞서 얘기한대로 1966년 12월에 열렸고 2부는 1967년 3월에 열렸다. 1부의 의제는 이뚜리오스 일파의 추방이었다. 이뚜리오스를 비롯한 4명은 아예 대회 참석이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 이뚜리오스파는 총회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참석자들 다수는 총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이뚜리오스 일파를 추방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¹³⁾ 그 이유는 총회에서 채택한 “사회-국수주의적 에스파냐주의의 분석과 비판”이라는 제목의 차타라보고서(Garmendia 1979 Vol. 1, 221)에 잘 나타나 있다. 에따의 진정한 혁명 노선을 반대하는 에스파냐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수정주의를 지향하고 현실과 유리된 이상주의적인 이념 체계를 유지하며 에스파냐주의적 사회주의의 탈을 쓰고 에따에 잠입해 바스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총회는 기소된 4명의 추방을 승인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했다. 반이뚜리오스 집단이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한편 총회에서 제명된 이뚜리오스파는 자신들을 에따-베리라고 불렀다. ‘새로운 에따’ 라는 의미였다.¹⁴⁾ 그리고 자체의 『주틱』을 계속 발행했다.¹⁵⁾ 마르크스주의파 혹은 에스파냐파로 알려진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한 1965년 4차 총회 이후부터 민족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에따-베리는 바스크족의 본질이 바스크어에 있다고 보는 5차 총회의 결의를 비판했다. 그들은 바스크어에 대한 집착이 노동자 연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스크어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바스크 민족주의자들의 국수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성향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13) 2명이 기권하고 1명이 투표를 취소했다.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졌다.

14) 이에 대해 총회에서 승리를 거둔 세력은 에따-베리와 구별하기 위해 자신들을 ‘구 에따’ 라는 의미의 에따-사하라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대개는 수식어가 없는 에따로 통했다.

15) 이를 『주틱-베리』라고 부르게 된다.

(ETA 1979-1981 Vol. 5, 275-285; Sullivan 1988, 66).

에따-베리는 1969년 봄까지 2년 간 다양한 공산주의 분파들과 연합하더니 바스크 민족주의와 관련이 없는 마오쩌둥주의 단체가 되었다. 마오쩌둥주의 자들은 에스파냐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에 투쟁하기 위해 에스파냐 애국주의자들과 동맹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제 이들은 바스크 애국주의 대신 에스파냐 애국주의를 더욱 중요시했다. 이들은 1969년 4월부터 경찰이 에따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기 시작하자 에따와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을 꼬무니스파끄(공산주의자)라고 불렀고 1970년에는 다시 에스파냐공산주의운동(MCE)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¹⁶⁾

5차 총회 2부에서는 반이푸리오스로 전략적 동맹을 맺은 칠라르데기 중심의 문화적 민족주의자들과 에스쿠비 중심의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Clark 1984, 45; Sullivan 1988, 69). 트로츠키파를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은 두 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 두 파벌이 외관상 민족주의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기는 했지만 문화적 민족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혁명적 민족주의와 언제나거나 공존할 수는 없었다. 제3세계 모델을 주장한 후자의 좌파 세력이 대회 초기부터 회의를 주도했고 하비에르 에체바리에따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3세계파가 승리를 거두고 문화주의파가 패배하는 순간이었다. 칠라르데기파와 에스쿠비를 비롯한 젊은 투사들의 연대가 해체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192

193

IV. 말기(1967-1970년)

1. 제3세계파의 전략

권력 장악에 성공한 에스쿠비와 에체바리에따가 이끄는 제3세계파는 5차

16) 잡지명도 『꼬무니스파끄』라고 개칭했다. 창간호에서는 민족주의 운동 창설자인 사비노 아라나의 인종주의를 비판하고 제2호에서는 에따의 이념적 전통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바스크어의 몰신화와 에따 출판물의 인종주의, 바스크가 식민지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에스파냐공산주의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총회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 에따를 ‘사회주의 선언’에 봉사하는 ‘바스크사회주의 민족해방 운동’으로 정의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게릴라 투쟁 전략을 담은 녹색보고서(ETA 1979-1981 Vol. 7, 57-99)를 채택했다. 장차 혁명에서는 노동계급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물론 하층 부르주아지나 중간 부르주아지도 혁명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투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회계급과 민족성을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바스크노동인민(PTV)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¹⁷⁾ 바스크노동인민은 바스크에 살면서 바스크의 열망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대부르주아지는 여기서 배제된 반면에 민족공동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소기업가들은 포함시켰다. 문제는 바스크 지역에 이주해온 이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은 “바스크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바스크어를 배운다면 바스크노동인민이 되고 투쟁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에 이바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바스크인 노동자와의 계급적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혁명에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바스크노동인민은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바스크 민족공동체의 지지만큼이나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한 제3세계파의 열망을 담은 개념이었다.

바스크노동인민은 에스파냐 정부의 억압의 희생자이자 사회주의 독립국가 바스크를 창설할 세력이기도 했다. 에스쿠비파는 이 개념이 민족해방 투쟁과 계급투쟁의 이분법을 극복할 공식을 제공해준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칠라르데기파와 달리 산업 선동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에따-베리와 달리 민족주의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산업 선동과 독립투쟁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했다(ETA 1979-1981 Vol. 7, 136-140). 이를 위해서 심지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하고 민족해방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7) 1967년 1월에 발행한 『주틱』 44호에 “바스크노동인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새로운 지도부는 또한 과두세력을 제외한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민족 전선 결성을 주창했다. 심지어 바민당에 동조하는 자본가들과의 연대도 마다하지 않았다(ETA 1979-1981 Vol. 7, 90-93). 이는 쿠바와 베트남, 알제리의 투쟁 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전술 분야에서는 기본 작전 원칙으로 종전의 나선이론을 재확인했다. 5차 총회는 이밖에 조직을 ‘국’ 대신에 종전의 정치전선, 문화전선, 사회경제전선, 군사전선의 4개 전선으로 나누었다.¹⁸⁾ 또한 정책과 작전 원칙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안은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전국 총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위원회가 매일의 작전을 지휘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를 감시하기 위해 빌차르치키아(BT) 또는 소총회라고 부르는 중앙위원회를 창설했다. 망명자들로 구성된 이 중앙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기본 이념을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Clark 1984, 46).

5차 총회 2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1967년 4월에 칠라르테기와 호세 마누엘 아기에레, 베니토 텔 바예, 하비에르 이마스 등 에따 창립자들 대부분이 에따를 탈퇴했다(ETA 1979-1981 Vol. 7, 101). 에따에 에스파냐파가 침투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탈퇴 이유였지만 사실은 5차 총회가 채택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나 게릴라 전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칠라르테기 일파는 이때부터 잡지 『브랑카』를 통해 그들 나름의 투쟁을 계속했다. 이들을 브랑카 집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브랑카 집단의 핵심 이념은 바스크 민족주의와 반(反)마르크스주의, 반(反)무장투쟁이었다.

칠라르테기 일파의 탈퇴와 더불어 에따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에따를 지휘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해나갔다. 1967년과 1968년 2월 사이에는 마다리아가와 크루트비히, 벨차 등 제3세계파 내에서 좀더 온건한 지도자들마저 망명을 떠났다. 이제 집행위원회는 이들보다 더 급진적인 성향을 지닌 젊은이들로 구성되었다.

18) 1968년에는 여기에 노동전선이 추가된다. 에스쿠비파는 제명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대신할 새로운 정치전선 위원들을 모두 자신들의 제3세계 집단에서 총원했다.

새로운 지도부는 곧 한 사건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고 무장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것은 에체바리에따의 사망과 장례식이었다(Clark 1984, 48-49; Sullivan 1988, 86-87). 1968년 6월 7일에 기쁘스꼬아 주의 아두아나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차비 에체바리에따¹⁹⁾와 이냐끼 사라스께따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치안대의 제지를 받았다. 이때 총격전이 벌어졌고 치안대원 한 명이 살해되었다. 에따 폭력의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남쪽 플로사에서 또 치안대와 마주친 에체바리에따는 도망을 치다가 사살되었다. 에체바리에따는 에따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도주에 성공한 사라스께따도 곧 체포되어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 사건으로 바스크 전역이 시끄러웠다. 주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요 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와 마을에서 사제들이 에체바리에따를 위한 장례식과 미사를 거행했다. 에체바리에따는 바스크인들의 민족영웅이 되었다. 그의 죽음으로 광범한 계층이 에따를 지지하고 나섰고 그와 더불어 에따 요원의 수가 급증했다.

평소에 행동-억압-행동의 나선이론을 주창해온 에따는 이제 마드리드 정부의 억압에 더욱 도발적인 행동으로 맞서야 했다. 그것이 그해 8월에 바스크 민족주의자들을 구타하고 고문하기를 즐긴 자로 악명이 자자한 멜리톤 만사나스 경찰서장 살해로 나타났다.²⁰⁾

마드리드 정부는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기쁘스꼬아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월 한 달에만 바스크 지방에서 6백 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듬해 1월에는 비상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때 에스꾸비를 제외한 에따 지도자들 거의 모두 체포되었다. 이들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부는 전임자들보다 더욱 젊었다. 1968년 5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동자·학생 투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전 지도부와 다소 생각이 달랐다. 전문 계렬라 집단의 무장투쟁보다는 대중행동, 특히 노동전선의

19) 하비에르 에체바리에따를 이렇게 불렀다.

20) 그의 아파트에 들어서려던 순간에 총잡이의 근접 사격을 받고 사망했다.

활동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새 지도부는 민족전선을 강화하면서도 노동계급에 비중을 두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 두 목표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비노 아라나의 유산과 마르크스주의 교리를 조화시키려는 글들을 썼다.

1969년 3월에 간행된 『주틱』 51호에서는 민족전선을 유지하면서도 국수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엘리트 집단의 폭력 행위보다는 대중행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소수의 전문 군사훈련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대중행동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새 지도부는 또한 『주틱』 51호를 통해 에따를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1970년을 민족전선의 해로 선포한다고 했다. 민족전선을 결성하려는 에따의 노력은 잡지 『바따수나(단결)』의 발행으로 나타났다. 에따는 1970년 4월에 『바따수나』 창간호에서 민족전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부정한 코무니스따끄(중전의 에따-베리)를 비판했다. 같은 잡지 3호와 4호에서는 “바따수나 량힐레(노동단결)”라는 구호를 통해 민족투쟁과 계급투쟁을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 사이의 중도 노선을 찾으려는 새 지도부의 노력은 매우 탁월한 정치이론가 빠초 운수에따가 쓴 “감옥서신(A todos los makos)”(ETA 1979-1981 Vol. 9, 367-375)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이 서신에서 노동자 정당 창당 정책과 민족전선 간의 내적 모순을 다루면서도 각자의 기반 강화는 상대방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매우 골치 아픈 이주민 문제도 다루었다. 그는 바스크노동인민을 바스크에서 노동력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바스크노동인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단일 언어 사용 대신에 이중 언어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민족전선 창설 노력에 에따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에스파냐공산당이 사상 처음으로 에따에 알베리에구나(바스크조국의 날) 시위 지원을 요청했고 바민당 청년단은 물론 일부 바민당 당원들이 에따에 대화를 걸어왔다. 이 무렵 에따는 이렇듯

다양한 정치세력의 호감을 샀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지도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에따-베리의 민족투쟁 포기와 초기 에따의 전통적 민족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크루트비히는 새로운 지도부가 민족투쟁을 계급투쟁에 종속시키면서 에따-베리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ETA 1979-1981 Vol. 12, 109-115). 줄렌 마다리아가도 이러한 비판에 공감했다. 이제는 조직의 일원이 아닌 벨차와 칠라르데기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Sullivan 1988, 105).

2. 6차 총회와 분열

1970년 8월에 프랑스 바스크 지역의 이차소에서 개최한 제6차 총회에서 에따는 다시 분열했다. 국내 지도부와 에스꾸비파, 마다리아가를 중심으로 하는 에따 창립요원들로 나뉘었다.

국내 지도부는 자신들의 멘토인 에스꾸비와 그 일파에게 총회 대의원 33명 가운데 11명을 위촉했다. 1969년 봄에 프랑스로 망명한 에스꾸비는 그곳에서 셀룰라스로하스(붉은세포들)라는 단체를 만들고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며 바스크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성취 전략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바스크 민족주의는 물론 에따가 중산계급과 하층 중산계급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바스크 지역 노동자 계급의 필요를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독재 체제 하에서는 바스크 지역을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투쟁을 에스파냐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lark 1984, 52-53). 이는 에스파냐 집단들과 동맹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에따 창립요원들이 금기시한 내용이었다.

마다리아가나 벨차를 중심으로 한 에따 창립요원들은 셀룰라스로하스의 입장에 반대했다. 이들은 바스크 민족성을 투쟁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에차베가 이끄는 집단은 이와 유사한 입장이면서도 무장투쟁을 유일한 대안으로 강조했다. 무장투쟁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이들을 밀리스(milis)라고 불렀다. 이

들은 주로 5차 총회에서 조직한 군사전선의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이 나중에 에따-긴파로 불리게 된다. 한편 무장투쟁을 옹호하면서도 폭력보다 정치군사적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집단도 있었다. 크루트비히가 이끄는 혁명전쟁 집단이 그들이었다. 이들 세 집단, 곧 마다리아가파와 에차베파, 크루트비히파는 바스크 민족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무장투쟁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마다리아가파는 그것을 반대했고 에차베파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으며 크루트비히파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우선시했다.

이 가운데서 6차 총회를 주도한 세력은 셀룰라스로하스였다. 그들은 첫 번째로 마다리아가를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다리아가 일파가 현 지도부를 타도하고 총회를 보이콧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제명 조치에 불만을 품은 에차베 일파(밀리스)는 자진해서 에따를 탈퇴했다(Sullivan 1988, 106).

이렇게 되자 남은 세력은 국내 지도부와 셀룰라스로하스였다. 국내 지도부는 대회를 진행하면서 셀룰라스로하스의 견해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셀룰라스로하스는 에따가 노동자 혁명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에따가 소부르주아 단체라고 보았다. 국내 지도부가 추진하는 바스크민족전선(FNV) 구상이 이를 입증해준다는 것이다. 국내 지도부와 셀룰라스로하스는 결국 에따의 통제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란을 벌였다. 망명지에서 에따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셀룰라스로하스는 결국 에따를 탈퇴했다(Clark 1984, 53-54; Sullivan 1988, 106-107). 이렇듯 망명 중인 구 지도자 세대가 축출되거나 자진 탈퇴하고 셀룰라스로하스마저 탈퇴하는 바람에 에따는 이제 국내 지도부, 곧 집행위원회로 축소되었다.

한편 에차베 일파는 국내 지도부에서 에따-베리와 같은 성격을 발견하고 그들을 ‘에스파냐주의자(españolista)’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총회 참가자들이 권력 장악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6차 총회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5차 총회가 선출한 중앙위원회(BT)를 유일한 합법적 지도부로 간주했다(ETA 1979-1981 Vol. 9, 465-474).²¹⁾ 이들은 국내 지도부와 셀룰라스로하스가

에따를 에스파냐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로 끌어들이려는 에스파냐주의의 우를 범했다고 했다. 아울러 바스크 혁명은 바스크에서 바스크인에 의해 일어나야 하고 바스크어가 독립국가 바스크의 유일한 언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ETA 1979-1981 Vol. 9, 451-452).

에차베는 바스크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 민족 문제인데 그것을 계급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에스파냐주의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에스파냐의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계급과 단결하려는 에스파냐주의자의 바람은 바스크 민족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한 걸 두고 바스크 망명정부가 사회당을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가톨릭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애국자들을 끌어 모을 민족전선을 결성하자고 주문했다. 크루트비히의 견해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국내 지도부를 에따-베리와 같은 부류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라고 했다(ETA 1979-1981 Vol. 9, 465-474).

1970년 12월에는 부르고스에서 이른바 부르고스재판이 열렸다. 이는 멜리톤 만사나스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에따 요원 16명의 판결을 다룬 군사재판이었다. 이 재판으로 에따-섹스파의 사상이 바스크 주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²²⁾ 에따-섹스파는 1972년에 다시 소수파인 트로츠키파(마요스)와 다수파인 반트로츠키파(미노스)로 분열한 다음 트로츠키파는 공산주의혁명연맹(LCR)과 통합하고 반트로츠키파의 상당수는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그 막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 소수 집단에 불과했던 에따-끼따가 차츰 세력을 규합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에따-끼따 요원들은 크루트비히와 벨차의 글들을 빌어 초기 에따의 민족주의로 돌아가려는 자신들의 열망을 정당화했다. 크루트비

21) 이렇게 5차 총회의 합법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나중에 이들을 에따-끼따라고 부르고 반면에 국내 지도부 중심의 에따를 에따-섹스파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서 ‘끼따’와 ‘섹스파’는 에스파냐어 서수로 5와 6을 의미한다.
 22) 당시 국제여론은 에따를 반프랑코 저항의 전위대로 보았다. 따라서 프랑코 정권에 게는 이 재판이 정치적 재난이나 다름 없었다(Muro 2008, 106).

히와 벨차는 “혁명적 민족주의 원칙”(ETA 1979-1981 Vol. 12, 18-24)이란 글에서 바스크어를 사용하는 자들만 완전한 바스크인이고 이 말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배워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스크의 적은 에스파냐이지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이 제시한 길은 민족해방을 위해서 모든 사회 계층의 애국자들로 구성되는 민족전선을 결성하고 무장 전위대 중심의 격렬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에따-긴따가 오늘날의 에따가 되었다.²³⁾

V. 결론

흔히 바스크 분리독립 단체로 알려진 에따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념투쟁의 홍역을 치렀다. 1960년대의 에따는 급진 좌파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문화적 민족주의 경향을 보였지만 1960년대 중반에는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고 그 후반에는 혁명적 민족주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념투쟁에서 제기된 논점 가운데 하나는 무장투쟁이었다. 바스크어를 강조한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지지했다. 특히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은 무장 전위대 중심의 혁명전쟁을 적극 주창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따는 무장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크루트비히가 얘기한 혁명전쟁론과 행동-억압-행동의 나선이론이 미친 영향이 컸다.

하지만 1960년대 에따의 분열과 통합은 사실 무장투쟁 여부보다 민족이나 계급이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시종일관 바스크 독립투쟁에 몰두한 구 에킨 집단(칠라르데기파)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바스크민족전선 결성을 주창했다. 이들은 바스크의 정체성을 위해 바스크어 사용을 고집했다. 반면에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 주안점을 둔 마르크스주의 집단(이푸리오스파)

23) 에따-섹스파와 에따-긴따의 갈등은 별도로 연구해야할 주제에 해당한다.

은 혁명적 노동자 정당을 창설해 보편적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했다. 이들에게는 바스크어 부활이나 바스크 독립국가 건설이 아니라 에스파냐 전역의 노동자 연대 결성이 중요했다. 이들이 에스파냐주의자 혹은 에스파냐파로 몰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양자, 곧 민족성과 사회계급을 결합하려고 시도한 이들이 있었는데 제3세계파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면서도 바스크 독립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마저 에스파냐 전역의 동맹을 모색하는 셀룰라스로하스와 바스크민족전선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갈렸으니 양자의 중립을 취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념투쟁은 프랑코 정권의 억압과 바스크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특히 1950년대부터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거대한 이주의 물결과 1960년대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노동운동의 물결이 에따 요원들을 강타했다. 이들은 그래도 민족을 고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급을 앞세워야 하는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 결론(이념)을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이것이 1960년대 바스크 젊은이들의 꿈과 현실이었다.

참고문헌

- Anderson, Benedict(1991), *Immagined Communities*, 2nd ed., London: Verso.
- Aretxaga, Begoña(1999), "A Hall of Mirrors: On the Spectral Character of Basque Violence," William A. Douglass, et al.(eds.), *Basque Politics and Nationalism on the Eve of the Millenium*, Reno: Center for Basque Studies, pp. 115-126.
- Arteaga, Federico de(1971), *ETA y el proceso de Burgos*, Madrid: E. Aguado.
- Beltza, López Adán E.(1977), *El nacionalismo vasco en el exilio, 1937-1960*, San Sebastián: Editorial Txertoa.
- Benegas, Txiki(2000), *Una propuesta de paz*, Madrid: Espasa Calpe, S.A
- Cámara de Comercio, Industria y Navegación de Bilbao(1978), *Dinámica de*

- la población y del empleo en el País Vasco*, Bilbao: La Cámara D. L.
- Clark, Robert P.(1979), *The Basques: the Franco years and beyond*,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_____(1984), *The Basque Insurgents: ETA, 1952-198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_____(1990), *Negotiating with ETA: Obstacles to Peace in the Basque Country, 1975-1988*,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 ETA(1979-1981), *Documentos Y*, San Sebastián: Lur.
- Garmendia, José María(1979), *Historia de ETA*, 2 Vols, San Sebastián: Haranburu.
- Geertz, Clifford(1963), "The Integrative Revolution: Primordial Sentiments and Civil Politics," Clifford Geertz(e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The Quest for Modernity in Asia and Africa*, London: Free Press of Glencoe, pp. 105-157.
-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Blackwell.
- Gurrutxaga Abad, Ander(1996), *Del PNV a ETA. La transformación del nacionalismo vasco*, San Sebastián: R & B Ediciones.
- Hastings, Adrian(1997),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li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barzábal, Eugenio(ed.)(1978), *50 años de nacionalismo vasco*, San Sebastián: Ediciones Vascas.
- _____(1979), "Así nació ETA," *Muga*, No. 1, Jun., pp. 76-89.
- Isaacs, Harold(1989), *Idols of the Tribe: Group Identity and Political Change*,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áuregui, Gurutz(1981), *Ideología y estrategia política de ETA: Análisis de su evolución entre 1959 y 1968*, Madrid: Siglo XXI.
- _____(1986),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Basque countr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4., pp. 587-605.
- Landáburu, Javier de(1956), *La Causa del pueblo vasco*, Paris.
- Madariaga, Julen(1963), *La insurrección en Euskadi*, Bayona.

Mata López, José Manuel(1993), *El nacionalismo vasco radical: Discurso, organización y expresiones*, Bilbao: Universidad del País Vasco.

Mees, Ludger(2003), *Nationalism, Violence, and Democracy: The Basque Clash of Identit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Morán, Sagrario(1997), *ETA entre España y Francia*,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Muro, Diego(2008), *Ethnicity and Violence: The Case of Radical Basque Nationalism*, New York & London: Routledge.

Núñez, Luis C.(1977), *Clases sociales en Euskadi*, San Sebastián: Txertoa.

Richards, Michael(1998), *A Time of Silenc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rrailh de Ihartza, Fernando(Federico Krutwig)(1962), *Vasconia*, Buenos Aires: Norbait.

Sartorius, Nicolás(1975), *El resurgir del movimiento obrero*, Barcelona: Laia.

Smith, Anthony D.(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London: Routledge.

Sullivan, John(1988), *El nacionalismo vasco radical 1959-1986*, Madrid: Alianza Editorial.

Yrizar, Pedro de(1973), “Los dialectos y variedades de la lengua vasca: Estudio lingüístico/demográfico,” *Separata del Boletín de la Real Sociedad Vascongada de los Amigos del País*, Vol. 29, No. 1-3.

Zulaika, Joseba(1988), *Basque Violence: Metaphor and Sacrament*,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향보영조

경북대학교 인문대 사학과
hbvision@knu.ac.kr

논문투고일: 2012년 6월 7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7일

Analysis of the Ideological Struggle of ETA in the 1960s: Nation versus Class

Yeong-Jo Hwangb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wangbo, Yeong-Jo (2012), Analysis of the Ideological Struggle of ETA in the 1960s: Nation versus Class.

Abstract We are apt to think that ETA is consistent in its strategy and policies, but it really is not. There was multiple ideological struggles within ETA in the 1960s. In this period three large ideologist groups engaged in a heated rivalry: cultural nationalists; revolutionary nationalists, and marx-leninists.

Some scholars have already dealt with this ideological struggle of ETA in the 1960s. However, in most cases they have examined it from the point of political violence, as if it is the core issue of the struggle. But, in reality, the more important issue was nation versus cla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ing the struggle focused on this issue. I examine this dividing the 1960s into three small periods for convenience' sake. The members of ETA put their ideas on the pamphlets, books, articles, addresses, etc. Fortunately, from 1979 to 1981 these documents were published in the 18 volumes. They have very useful resources for this study.

Key words ETA, Ekin, Basque, Nationalism, Basque National Front

